조직이 함께 사용하는 AI

Yurika

업무용 AI 에이전트

회사의 양식 · 자료 · 업무를 아는 **에이전트 팩**으로,
첫날부터 조직의 일을 처리합니다.



이 브로슈어는 기능 목록이 아니라, 조직에 AI를 들이려는 기업이 실제로 꺼내는 일곱 가지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고민 한 장, 해결 한 장씩
차례로 이어집니다.



들어가며

들어가며	조직에 AI를 들이려는 기업의 일곱 가지 고민	p.03
솔루션	개인용 AI와 업무용 AI는 무엇이 다른가	p.04
에이전트 팩	Yurika의 핵심, 에이전트 팩	p.05

일곱 가지 고민과 해결

고민 01	직원마다 개인 AI를 따로 사용해 결과가 제각각이다	p.06
고민 02	AI가 우리 회사 양식과 규정을 모른다	p.08
고민 03	사용해 보라고 해도 무엇을 시켜야 할지 모른다	p.10
고민 04	에이전트를 만들 사람이 없다	p.11
고민 05	결과물이 개인 계정에 흩어지고 관리되지 않는다	p.12
고민 06	결과를 메일 · 파일 서버로 다시 옮긴다	p.14
고민 07	우리 업종에 맞는 AI가 없다	p.15

적용과 도입

사용 환경	브라우저에서 시작하고, 필요하면 데스크탑 앱으로	p.16
적용 예시	부서 팩으로 달라지는 하루	p.17
도입 순서	체험 신청부터 계약 · 팩 추가까지	p.19
문의	체험 신청 · 도입 문의	p.20

자주 듣는 고민

조직에 AI를 들이려는 기업이 가장 먼저 꺼내는 일곱 가지 고민

AI는 이미 많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업무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도입 상담 자리에서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고민을 클릭하면,
그 고민을 Yurika가 어떻게 푸는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민 01 "직원마다 개인 AI를 따로 사용해서, 결과가 제각각입니다." 조직의 AI →
고민 02 "AI가 우리 회사 양식과 규정을 모릅니다." 회사 양식 →
고민 03 "사용해 보라고 해도, 무엇을 시켜야 할지 모릅니다." 처음 사용 →
고민 04 "업무 에이전트를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팩 추가 →
고민 05 "AI 결과물이 개인 계정에 흩어집니다." 통제 →
고민 06 "결과를 메일 · 파일 서버로 다시 옮깁니다." 커넥터 →
고민 07 "우리 업종에 맞는 AI가 없습니다." 업종 팩 →

개인용 AI와 업무용 AI

개인용 AI가 아니라, 조직이 함께 사용하는 업무용 AI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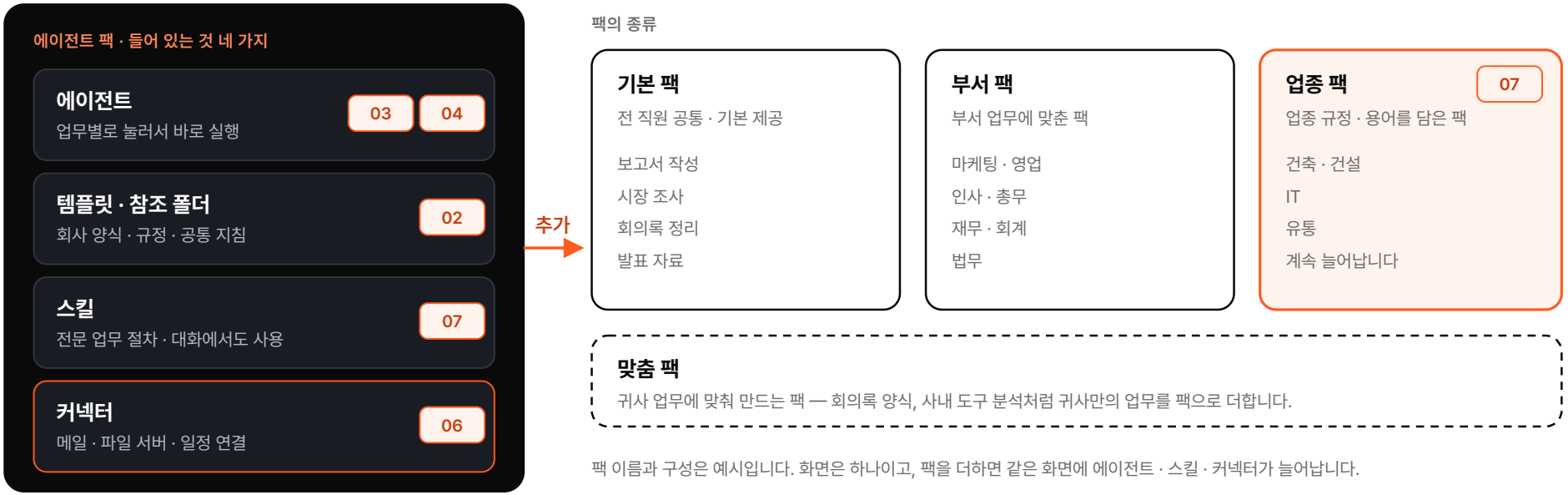
업무용 AI 에이전트 개인 메일과 회사 메일이 다르듯, AI도 다릅니다. 개인 보조로는 외부 AI를, 조직의 업무에는 Yurika를 사용합니다.

구분	개인용 AI (외부 AI)	업무용 AI · Yurika	
누가 사용하나	직원 각자가 개인 계정으로	**조직이 하나의 환경에서 함께**	해결 01
회사 양식 · 자료	매번 붙여 넣고 설명	**저장소의 템플릿 · 참조 자료로 작성**	해결 02
시작 방법	빈 대화창에서 프롬프트부터	**에이전트를 눌러 시작, 대화로 마무리**	해결 03
업무 에이전트	사용자가 직접 만듦	**에이전트 팩을 추가하면 바로 생김**	해결 04
결과물 · 사용 기록	개인 계정에 남음	**저장소에 모이고, 회사가 확인 · 통제**	해결 05
업무 시스템	결과를 손으로 옮김	**커넥터로 메일 · 파일 서버에 연결**	해결 06
업종 맞춤	사용자가 그때그때 설명	**업종 팩 · 맞춤 팩**	해결 07

Yurika의 핵심

에이전트 팩을 더할수록,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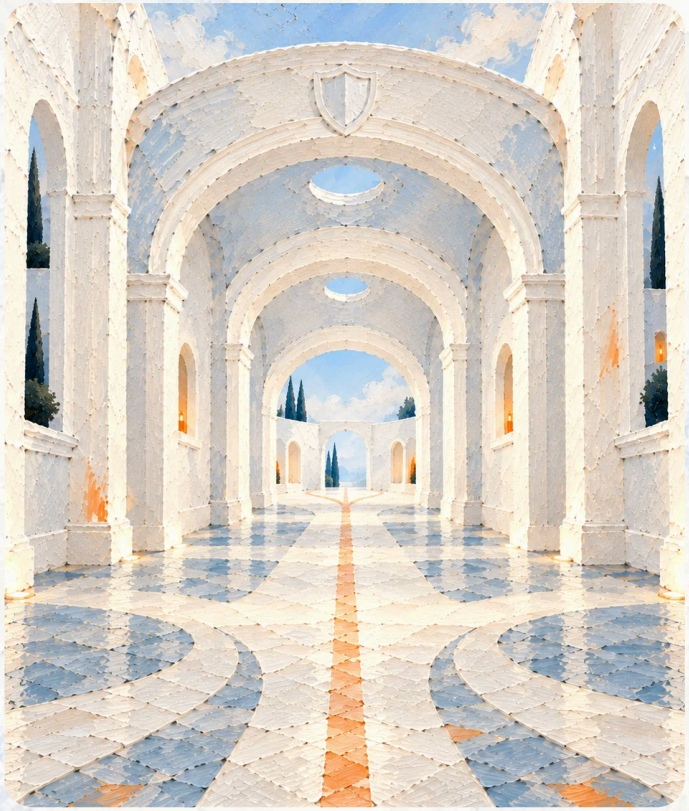
에이전트 팩 업무 하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이전트 · 템플릿과 참조 자료 · 스킬 · 커넥터를 한 묶음으로 담았습니다.



팩 이름과 구성은 예시입니다. 화면은 하나이고, 팩을 더하면 같은 화면에 에이전트 · 스킬 · 커넥터가 늘어납니다.

‘고민’ 번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고민으로 이동합니다.

고민 01 · 개인용 AI



직원마다 개인 AI를 따로 사용해서, 결과가 제각각입니다.

AI 사용을 허용한 기업의 경영진과 팀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같은 일, 다른 결과

사람마다 질문하는 방식과 양식이 달라, 같은 보고서도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회사 자료는 매번 옮겨 넣습니다

개인 AI는 회사 자료를 모릅니다. 사용할 만한 답을 얻으려면 자료를 찾아 붙여 넣어야 합니다.

노하우가 개인에게 남습니다

잘 만든 질문과 결과물이 개인 계정에 남아, 조직의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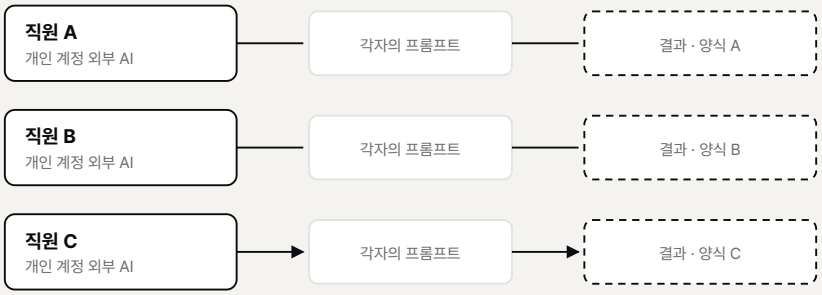
숨은 걱정 **"AI를 들였는데, 조직이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인 것"**

Yurika의 해결 보기 →

해결 01 · 조직의 AI

따로 사용하는 AI가 아니라, 조직이 함께 사용하는 AI입니다.

지금



같은 업무인데 사람마다 양식과 기준이 다릅니다

AI는 들였지만, 일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Yurika 도입 후



개인 보조로는 외부 AI를 사용해도 됩니다. 조직의 업무는 Yurika에서 처리합니다.

조직이 같은 에이전트 · 같은 기준으로 일하고, 결과는 한곳에 모입니다.

조직이 하나의 환경에서

회사 단위로 Yurika를 열고,
직원은 사내 계정으로 함께 사용합니다.

같은 에이전트를 함께

잘 만든 에이전트는 공유해,
누가 실행해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결과물은 저장소로

만든 문서와 자료가 조직의 저장소에
모여, 다음 업무의 참조 자료가 됩니다.

개인용 AI와 역할을 나눕니다

개인 보조로는 외부 AI를,
조직의 업무에는 Yurika를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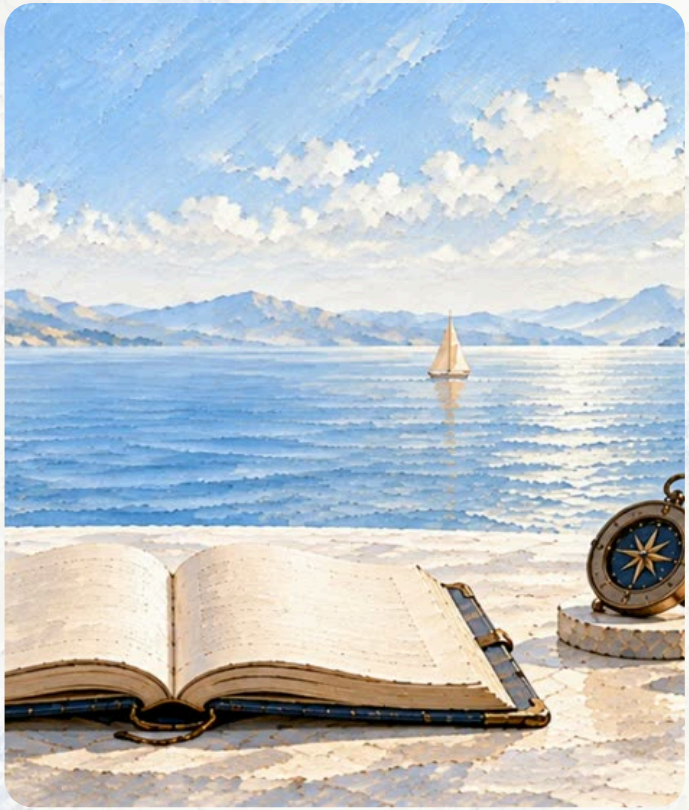
고객이 얻는 것

- ✓ 누가 해도 같은 양식 ·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 잘 만든 에이전트와 결과물이 조직에 쌓입니다
- ✓ 사용할수록 회사에 맞는 AI가 됩니다

고민 02 · 회사를 모르는 AI

AI가 우리 회사 양식과 규정을 모릅니다.

보고서 · 공문 · 발표 자료를 매일 만드는 실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초안을 회사 양식으로 다시 옮깁니다

AI가 만든 문서는 일반 양식입니다. 결재에 올리려면 회사 양식에 다시 맞춥니다.

사내 규정과 다른 답이 나옵니다

AI는 회사의 지침과 규정을 모릅니다.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번 설명부터 합니다

회사 상황과 기준을 이해시키려고, 요청할 때마다 긴 설명을 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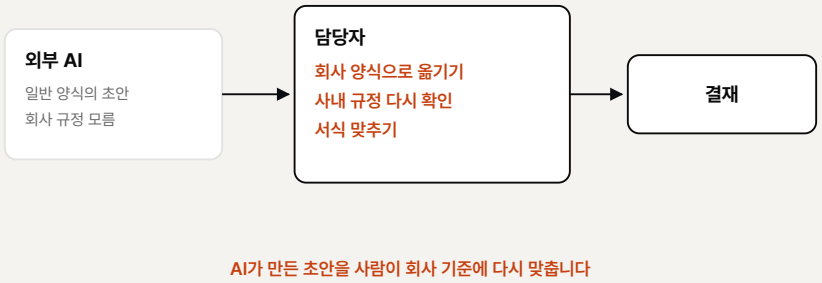
숨은 걱정 **"AI 초안을 고치는 데 시간이 더 드는 것"**

Yurika의 해결 보기 →

해결 02 · 템플릿과 참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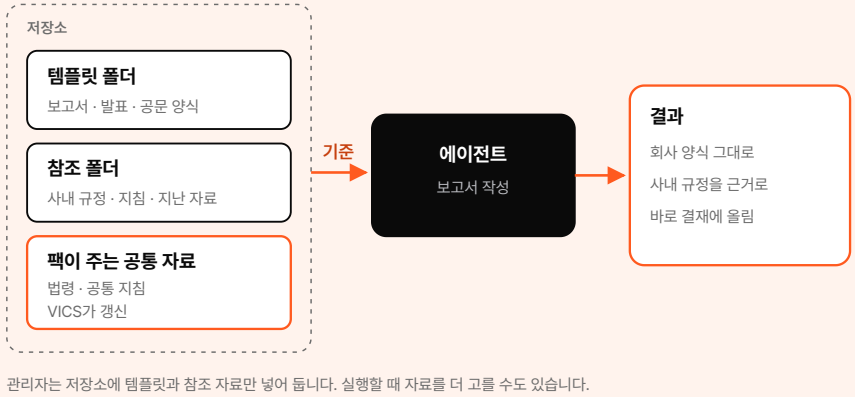
회사 템플릿과 참조 자료를 넣어 두면, 회사 양식 그대로 만듭니다.

지금



AI가 만든 초안을 사람이 회사 기준에 맞춥니다.

Yurika 도입 후



처음부터 회사 양식과 자료를 기준으로 만듭니다. (화면 예시)

템플릿 폴더
보고서 · 발표 · 공문 양식을 넣어 두면,
에이전트가 그 양식으로 만듭니다.

참조 폴더
사내 규정 · 지침 · 지난 자료를 넣어 두면,
그 내용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공통 자료는 팩이 제공
법령 · 공통 지침처럼 일반적인 자료는
팩에 들어 있고, VICS가 갱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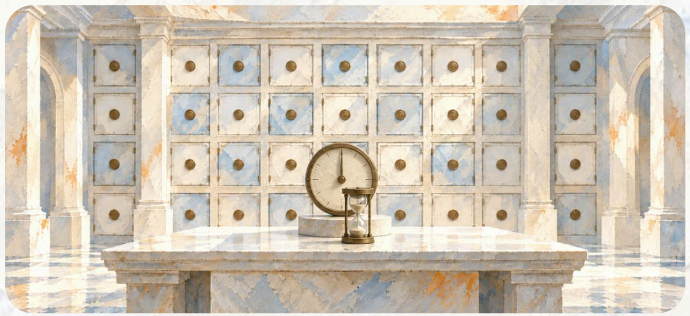
설명은 한 번만
회사의 기준이 미리 들어 있어,
요청할 때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얻는 것

- ✓ 초안을 회사 양식으로 다시 옮기지 않습니다
- ✓ 사내 규정에 맞는 결과를 받습니다
- ✓ 매번 하던 설명이 사라집니다

고민 03 · 처음 사용하는 직원

사용해 보라고 해도, 무엇을 시켜야 할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처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조직에는 AI에 익숙한 사람보다,
필요한 일만 하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빈 대화창 앞에서 멈춥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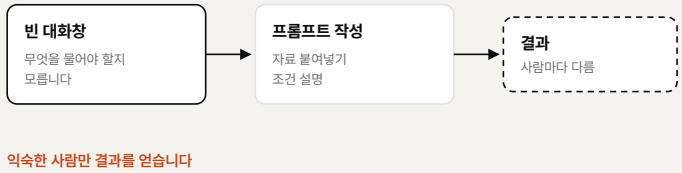
질문을 잘 작성해야 결과가 나오니,
몇 번 시도하다 그만둡니다.

숨은 걱정
"일부 사람만 사용하고 끝나는 것"

해결 03 · 에이전트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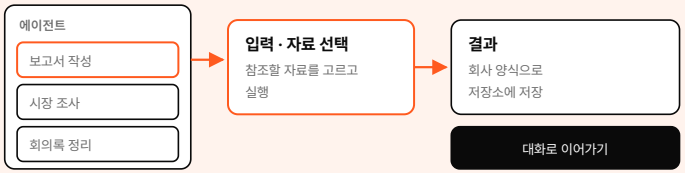
에이전트를 눌러 시작하고, 대화로 이어 마무리합니다.

지금



질문을 잘 작성하는 사람만 결과를 얻습니다.

Yurika 도입 후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눌러서 결과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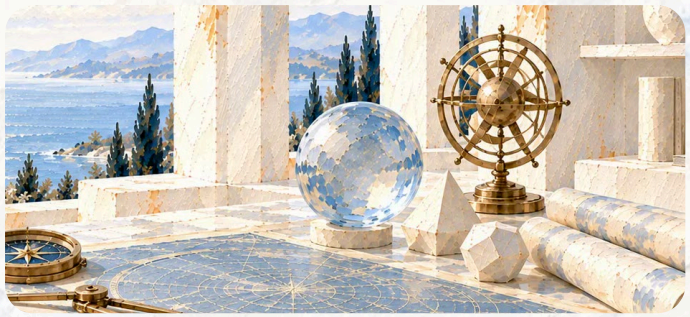
고객이 얻는 것

- ✓ 처음 사용하는 날부터 업무 결과가 나옵니다
- ✓ 조금만 사용해도 효과가 보입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고민 04 · 에이전트 만들기

업무 에이전트를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만들려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업무 절차를 설계하고 자료와 시스템을 연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시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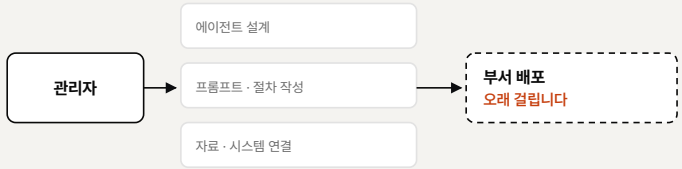
본업이 있는 관리자가 부서마다
에이전트를 만들어 주기 어렵습니다.

숨은 걱정
"도입하고도 빈 화면만 남는 것"

해결 04 · 에이전트 팩 추가

팩을 추가하면 에이전트가 생기고, 관리자는 템플릿만 채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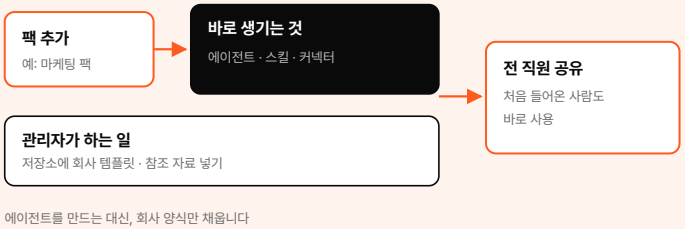
지금



만들 사람이 없으면 화면이 비어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만들 사람이 있어야 시작합니다.

Yurika 도입 후



에이전트를 만드는 대신, 회사 양식만 채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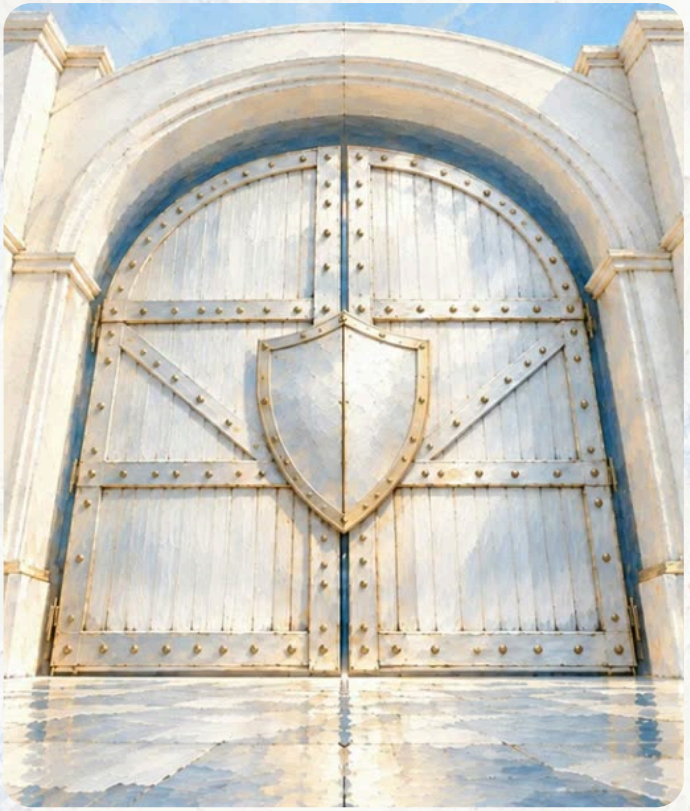
팩을 추가하는 날, 부서 에이전트가 생깁니다.

고객이 얻는 것

- ✓ 에이전트를 만들 전문가 없이 시작합니다
- ✓ 관리자의 일이 템플릿 채우기로 줄어듭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고민 05 · 관리와 통제



AI 결과물이 개인 계정에 흩어집니다.

정보보호 · 감사 · 재무 담당자가 도입 결정 전에 꼭 묻는 질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결과물이 개인에게 남습니다

AI로 만든 문서와 대화가 개인 계정에 남아,
담당자가 바뀌면 함께 사라집니다.

무엇이 나갔는지 모릅니다

고객 정보가 담긴 자료를 그대로 붙여 넣어도,
회사는 확인할 기록이 없습니다.

비용은 청구서로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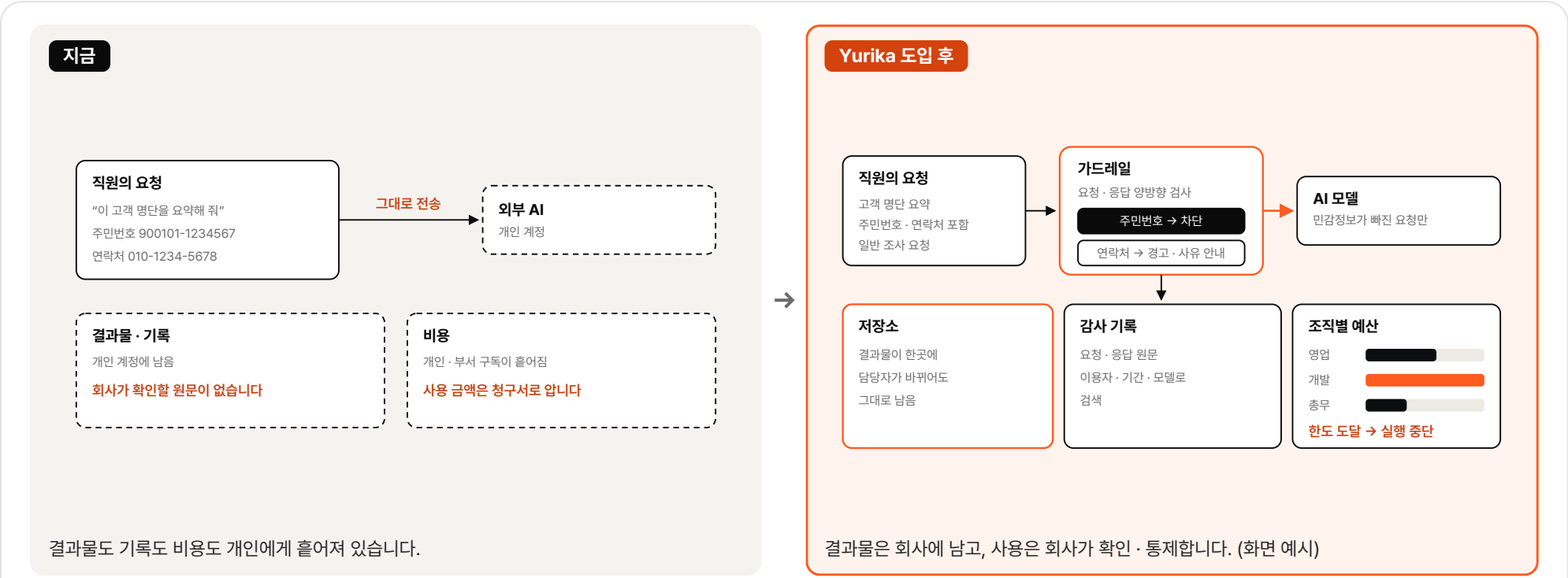
개인 · 부서 구독이 흩어져,
회사 전체 사용 금액을 알지 못합니다.

숨은 걱정 **"조직의 자료가 관리 밖에서 새어 나가는 것"**

Yurika의 해결 보기 →

해결 05 · 저장소와 통제

결과물은 저장소에 모이고,
사용은 회사가 확인 · 통제합니다.



결과물은 저장소로
만든 문서와 자료는 조직의 저장소에서 중앙 관리합니다.

민감정보 전송 차단
차단할 항목을 키워드 · 패턴으로 등록하고, 요청과 응답을 양방향으로 검사합니다.

원문 그대로 기록
이용자 · 시각 · 모델 · 요청 · 응답을 남기고 조건으로 찾습니다.

예산과 권한
조직별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계정은 사내 인증과 연동해 관리합니다.

고객이 얻는 것

- ✓ 결과물이 조직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 ✓ 사고가 의심되면 원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 예산 밖의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민 06 · 업무 시스템

결과를 메일 · 파일 서버로 다시 옮깁니다.



결과를 손으로 옮깁니다

AI가 만든 결과를 복사해 메일을 작성하고,
파일 서버에 저장하고, 일정을 등록합니다.

AI는 회사 시스템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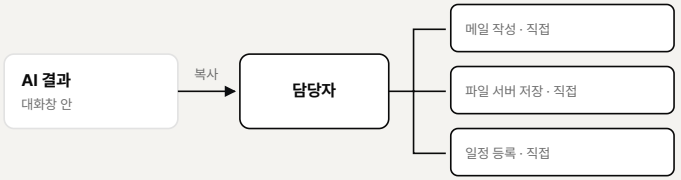
메일 · 파일 서버 · 일정에 있는 정보를
AI가 직접 가져오지 못합니다.

숨은 걱정
"AI 앞뒤의 일은 그대로 사람이 하는 것"

해결 06 · 커넥터

커넥터로 연결하면, 결과가 업무 시스템으로 갑니다.

지금



결과를 사람이 시스템마다 옮깁니다

AI 앞뒤의 일을 사람이 처리합니다.

Yurika 도입 후



연결이 필요한 스킬은 실행 전에 연결을 안내합니다

결과가 회사 시스템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고객이 얻는 것

- ✓ 결과를 옮기는 일이 사라집니다
- ✓ 직원은 로그인만 하면 연결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고민 07 · 업종 맞춤

우리 업종에 맞는 AI가 없습니다.



업종 규정과 용어를 모릅니다

외부 AI는 업종의 규정 · 용어 · 일하는 방식을 모릅니다.
매번 설명해야 합니다.

맞춤 개발은 부담입니다

회사 업무에 맞추려면 별도 개발과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숨은 걱정
"우리 업무에는 AI가 맞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

해결 07 · 업종 팩 · 맞춤 팩

업종 팩으로 시작하고, 필요하면 맞춤 팩을 더합니다.

지금



업종에 맞추는 일이 사용자 몫입니다

업종에 맞추는 일을 사람이 떠안습니다.

Yurika 도입 후



팩은 계속 늘어납니다. 필요한 팩을 골라 더합니다

맞춤은 화면이 아니라 팩으로 더합니다.

고객이 얻는 것

- ✓ 업종 규정과 용어를 아는 AI로 시작합니다
- ✓ 맞춤 팩을 더해도 업데이트는 그대로 받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사용 환경

브라우저에서 바로 시작하고, 필요하면 데스크탑 앱으로 넓힙니다.

기본

브라우저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합니다.

- 에이전트 · 대화 · 저장소 · 스킬
- 팩 추가와 관리자 설정
- 체험도 브라우저에서 시작

선택

데스크탑 앱

내 PC의 파일과 코드까지 다룹니다.

- 내 PC 폴더 작업
- 개발 · 코드 작업
- 같은 에이전트 · 같은 스킬

운영 · 보안

SaaS로 운영

새 기능과 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자동 업데이트 · 별도 설치 없음
- 가드레일 · 감사 기록 · 조직별 예산
- 인프라 요건이 있으면 고객 전용 클라우드 구성 협의

스킬은 어디서 실행해도 같습니다. 브라우저에서는 서버 자원으로, 데스크탑 앱에서는 내 PC 자원으로 실행합니다.

업무 적용 예시

부서 팩을 더하면, 부서마다 하루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케팅 팩 · 캠페인 성과 보고

성과 보고서를 회사 양식으로 바로 받습니다

고객이 얻는 것 — **정리하는 시간 대신** 다음 캠페인을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채널별 성과를 모아 엑셀로 정리하고, 지난 보고서 양식을 열어 내용을 옮겨 적습니다.

→

Yurika가 맡는 일
캠페인 성과 보고 에이전트가 저장소의 회사 보고 양식과 지난 보고서를 기준으로 성과를 정리하고, 결과를 파일 서버에 저장합니다.

→

담당자가 하는 일
숫자의 의미를 확인하고, 다음 캠페인 방향을 정합니다.

이 장면을 만드는 Yurika: 해결 02 회사 양식 · 해결 03 에이전트 · 해결 06 커넥터

연결하는 것: 보고 양식 · 지난 보고서 · 파일 서버

영업 팩 · 고객 방문 준비

방문 준비는 짧게, 고객과의 이야기에 시간을 둡니다

고객이 얻는 것 — **자료를 찾는 시간 대신** 고객을 이해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방문 전에 고객사 소식 · 지난 미팅 기록 · 제품 자료를 따로 찾아 정리하고, 제안서는 지난 파일을 열어 고칩니다.

→

Yurika가 맡는 일
방문 준비 에이전트가 고객사 공개 정보와 저장소의 제품 자료 · 지난 회의록을 모아 요약하고, 회사 제안서 양식으로 초안을 만듭니다.

→

담당자가 하는 일
초안을 고객에 맞게 다듬고, 방문에서 나눌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이 장면을 만드는 Yurika: 해결 02 참조 자료 · 해결 01 조직의 AI · 해결 05 저장소

연결하는 것: 제품 자료 · 지난 회의록 · 제안서 양식

업무 적용 예시입니다. 팩 이름과 구성은 예시이며, 실제 범위는 귀사의 업무와 자료에 맞춰 함께 정합니다.

업무 적용 예시 ·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업무에서도 일합니다.

인사 · 총무 팩 · 사내 문의

같은 규정 질문에 매번 조항을 찾지 않습니다

고객이 얻는 것 — **반복 문의가 담당자에게 몰리지 않고,** 직원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휴가 · 출장비 · 복리후생처럼 같은 질문이 하루에도 여러 번 오고, 담당자가 매번 규정을 찾아 답합니다.

→

Yurika가 맡는 일

규정 안내 에이전트가 저장소의 취업규칙 · 인사 매뉴얼을 근거로 관련 조항과 함께 답합니다.

→

담당자가 하는 일

규정이 바뀌면 참조 폴더의 문서만 바꾸고, 판단이 필요한 예외 문의에 집중합니다.

이 장면을 만드는 Yurika — 해결 02 참조 폴더 · 해결 03 처음 사용 · 해결 05 감사 기록

연결하는 것 — 취업규칙 · 인사 매뉴얼 · 사내 공지

재무 · 회계 팩 · 월 실적 정리

계산보다 해석에 시간을 사용합니다

고객이 얻는 것 — **숫자를 맞추는 일보다** 숫자의 의미를 설명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지금은

부서별 엑셀 여러 개를 합쳐 예산 대비 실적을 계산하고, 차이가 큰 항목의 설명 자료를 따로 작성합니다.

→

Yurika가 맡는 일

실적 분석 에이전트가 엑셀 · 사내 DB를 읽어 예산 대비 실적과 벗어난 구간을 보여 주고, 회사 양식으로 설명 자료 초안을 만듭니다.

→

담당자가 하는 일

확인 항목을 점검해 원인을 확정하고, 설명 자료를 마무리해 보고합니다.

이 장면을 만드는 Yurika — 해결 06 커넥터 · 해결 02 회사 양식 · 해결 05 예산

연결하는 것 — 부서별 엑셀 · 사내 DB · 보고 양식

업무 적용 예시입니다. 팩 이름과 구성은 예시이며, 실제 범위는 귀사의 업무와 자료에 맞춰 함께 정합니다.

도입 순서

먼저 체험해 보고 결정합니다.
체험한 환경이 그대로 귀사의 Yurika가 됩니다.

1

체험 신청

회사 정보와 사용 인원을 남기면,
확인 후 체험 환경을 열어 드립니다.

고객이 얻는 것
설치 없이 바로 시작할 환경

2

15일 체험

체험 크레딧으로 동료를 초대해, 기본 팩으로
실제 업무를 처리해 봅니다.

고객이 얻는 것
우리 업무에서 통하는지에 대한 확인

3

계약 · 개통

인원과 팩, 계약 기간(6 · 12개월)을 정합니다.
체험 환경과 자료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고객이 얻는 것
옮기지 않고 이어지는 업무

4

팩 추가 · 확대

부서 팩 · 업종 팩을 더하고,
필요하면 맞춤 팩을 함께 만듭니다.

고객이 얻는 것
쓸수록 회사에 맞는 AI

체험 신청 전에 정해 두면 좋은 것

사용 인원
먼저 사용할 부서와
대략의 인원

첫 업무
반복이 많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 두세 가지

회사 양식
보고서 · 발표 · 공문 등
실제로 사용하는 양식

연결할 시스템
메일 · 파일 서버 · 일정 등
지금 사용하는 업무 도구

SaaS로 바로 시작
설치 없이 시작하고, 새 기능과 팩은
자동 업데이트로 반영됩니다.

고객 전용 클라우드 협의
인프라 요건이 있는 조직은
고객 전용 클라우드 구성을 협의합니다.

맞춤은 에이전트 팩으로
화면은 그대로 두고, 귀사 업무에 맞춘
팩을 만들어 더합니다.

상담 안내

귀사의 고민부터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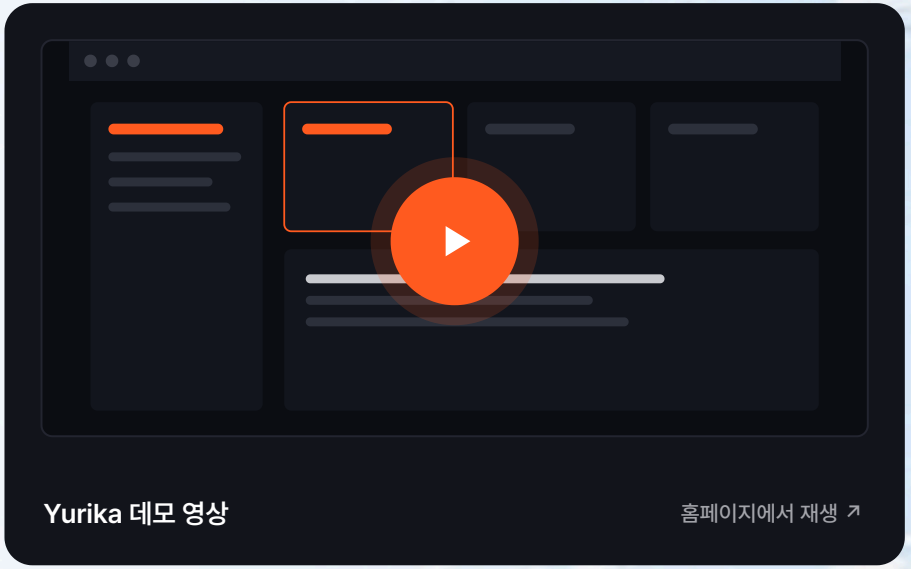
먼저 사용할 부서와 업무 하나를 알려 주시면, 그 업무에 맞는 에이전트 팩으로 체험 환경을 열어 드립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다면 데모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체험 · 도입 문의하기 →

▶ 데모 영상 보기

문의 때 가장 급한 고민 하나를 알려 주세요

조직의 AI | 회사 양식 | 처음 사용 | 팩 추가 | 통제 | 커넥터 | 업종 팩



이메일
sales@vicsnc.com

웹사이트
vicsnc.com